

# 동남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훈련 프로그램 개발(1):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of a Parenting Training Program for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from Southeast Asia(1): A Case-Study of Filipino

신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최형성

Department of Childhood Education, Sill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Hyung Sung Cho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I devised a parenting training program in order to help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address child behavior problems. The target ethnic group for this study was south-east Asians, in particular Filipino mothers. Two group, each containing 7 mothers, were provided with 8 parenting training sessions. The participants, all with Korean husbands, were already trained in Korean traditional parenting value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To test the effect of this program, pre-, post-, and 6-months follow-up tests were conducted. Resulted showed that the parenting training program improve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enhanced parenting self-efficacy, and reduced the children's problem behaviors.

**주제어(Key Words)** : 여성결혼이민자(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동남아(Southeast Asia), 필리핀(Filipino), 부모훈련 프로그램(parenting training program)

**Corresponding Author** : Hyung Sung Choe, Department of Childhood Education, Silla University, Silla University Street 100, Gwaebup-dong, Sasang-gu, Busan, 617-736, Korea Tel: +82-51-999-5302 Fax: +82-51-999-5302 E-mail: hyungsung@silla.ac.kr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31-C00299)

## I. 서론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는 외국인 여성의 급속한 증가 현상은 각종 매체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들어 주목할 만한 현상은 동남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급격한 증가 추세이다. 2000년 1,500여명이었던 동남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2006년 12,000여명으로 증가하였는데(통계청, 2006), 이는 비율로 살펴보면 6년 사이에 700% 가까운 증가율인 것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이들 가정이 전체 가정의 4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제까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가정(37%)을 이미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창원 여성의 전화, 2007).

동남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출산율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06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결혼 건수 대비 분만건수의 비율이 베트남의 경우 94.2%, 필리핀의 경우 85%, 태국의 경우 54.2%의 비율이었다고 한다(마산 교육청, 2007). 현재 가장 많은 여성결혼이민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 여성의 출산율이 15.9%라는 점(마산 교육청, 2007)을 고려하여 보면, 조만간 이들이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중국 출신 여성들이 출산하는 자녀의 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현재 동남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 중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집단이며(교육과학기술부, 2008) 대부분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종교를 믿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수와 비율은 앞으로도 한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견된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이들의 발달지체 및 문제행동 역시 한국사회의 이슈가 되어 왔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은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로 인해 언어발달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나치게 소극적 또는 폭력적 행동,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또한 국제결혼자녀의 아동들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34.1%에 달하며 현재 재학 중인 아동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교 아동이 정서적으로 민감해지는 중·고교 진학 연령대에 진입할 경우 편견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아동의 문제행동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의해 기인되는 경향이 있다(남영옥, 2001; 엄명용, 2000; Glueck & Glueck, 1950; Patterson, Reid, & Dishion, 1992; Wells & Rankin, 1988). 게다가 부정적 양육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안정화된다는 점(Kazdin, 1985),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

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는 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더욱 더 악 순환적으로 발전되기 쉽다는 점과 아동의 문제행동은 청소년 및 성인의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많은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를 낳게 한다. 대체로 부모의 온정적 그리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낮은 문제행동과 관련되며, 통제적 또는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높은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Coopersmith, 1967; Mondell & Tyler, 1981; Rogenberg, 1965; Wells & Rankin, 1988). 한편 양육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 중 하나인 양육효능감은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정적인 관련성을,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 부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향(Coleman & Karraker, 1997; Eccles & Harold, 1996; Gondoli & Silverberg, 1997; Leerkes & Crokenberg, 2002)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변인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높은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온정적, 비차별적, 긍정적, 반응적, 민감한 양육행동과 관련되고, 낮은 양육효능감은 아동학대, 통제적, 강압적 양육행동 그리고 수동적·소극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대처, 양육기술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 부족과 관련이 높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Eccles & Harold, 1996; Gondoli & Silverberg, 1997; Leerkes & Crokenberg, 2002).

양육효능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양육효능감이란 대체로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최형성, 2002). 학자들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으로 가지고 있으며 부모들이 보여주고 있는 양육행동의 차이 역시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차이에 의한 결과라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Teti & Gelfand, 1991).

최근까지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양육행동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며(코시안의 집, 2006a),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빈곤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학교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경향(코시안의 집, 2006b)이 있다고 한다. 또한 낮 시간대에 미취학 아동이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비율도 7.2%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여성가족부, 2007), 이혼으로 이어지는 가정폭력과 불화(교육인적자원부 외, 2006),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모의 양육 불일치 역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이와 같은 경향성과, 현재 이들의 아동들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행동,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나타나는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등에 근거하여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해 부모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신장시키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개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과 아동 발달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의와 타의에 의해 주양육자의 역할 수행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구수연, 2007;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2006; 전홍주, 배소영, 광급주, 2008), 그 자녀 역시 한국어가 익숙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지도를 무시하거나 여성결혼이민자를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고(김민정 외, 2006; 전홍주 외, 2008; 홍달아기, 채옥희,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행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경향성(최형성, 2009a, 2009b)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된 연구의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들 대신하여 국가가 아동에 대한 양육을 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는 점만 만 아니라,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해악은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양육에 관한 개입은 가정에 관한 개입 중 단기간 내에 변화가능성이 강한 개입(엄명용, 2001)이므로, 어린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신장시키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발달시키며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억제하여 아동의 폭력성이나 문제행동의 수위를 낮추는 부모훈련 프로그램 제공이 우선시된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연령이 될 때까지 방지할 경우 문제행동의 정도는 심각해지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는 감소되는 경향(Bullis & Walker, 1994; Francis, Shaywitz, Stuebing, Shaywitz, & Fletcher, 1991)과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연령이 대체로 저연령층에 집중되고 있어 있는 현실(보건복지부, 2005; 승혜경, 2008)을 고려하여 볼 때 저연령의 아동을 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기 적절한 연구라 하겠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동일한 문화 및 사용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 국가별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및 부모교육에 관해 심층 면접을 해 보면 이들 대다수는 자녀 양육에 관한 교육을 어디서든 받은 적이 없었으며, 한국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소수의 경우도 한국어 수준이나 출신국의 공용어 및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려운 한국어로 진행되는 획일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지루하며 양육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언

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되는 특정 국가별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아동과 바람직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고 양육의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 학습을 첨가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게다가 소집단으로 구성된 훈련 프로그램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양을 증가시키고 양육에 관한 궁금한 것을 질문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의논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양육행동 및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양육행동, 가치관, 기술 등의 습득에 더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집단이 동남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이라는 점(통계청, 2006)과 동남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중 자녀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집단이 필리핀(교육과학기술부, 2008)이라는 측면에서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매우 의미있다 하겠다.

필리핀은 16세기 이후 스페인, 미국, 일본에 의해 점령 및 지배를 받은 역사를 가진 나라로써 단일민족으로 오랫동안 한 민족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과 달리 다른 문화에 대한 이질감이 비교적 적은 국가이다. 또한 16세기부터 시작된 서구 지배의 역사는 2차 대전 일본의 지배 이전까지 지속되어 왔으므로 동양의 유교문화나 동양적 사고방식 및 가치관 등이 뿌리 깊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은 국가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바다로 인해 섬과 섬 사이의 교류가 용이치 않았으며 현재 공식 언어로 타갈로그어와 영어가 사용되고 있다. 학교의 체계도 한국과 달리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 및 대학원 체계 역시 한국과 다른 졸업 연한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심층 면접한 결과, 필리핀에서의 양육은 한국에서의 양육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자녀 양육을 주로 어머니의 몫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자녀 양육을 부모와 친·인척에 의한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한 곳에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차이는 이들의 주거 형태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은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인근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서로 유기적인 왕래를 많이 함으로써 자녀 양육도 공동의 몫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한국보다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남녀 구분 없이 식사준비를 한다든지, 자녀 양육에도 남녀 구분 없이 참여하는 등 한국보다 비교적 남녀 평등적 생활의 경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

(n = 14)

변인	실험집단	비교집단	변인	실험집단	비교집단
어머니 직업			아버지 직업		
무(n, %)	5(71.4)	2(28.6)	무(n, %)	0	0
유(n, %)	2(28.6)	5(71.4)	유(n, %)	7(100)	6(100)
무응답(n)	0	0	무응답(n)	0	1
어머니 평균연령 (SD, 범위)	37.43세 (7.04, 27세~46세)	35.43세 (6.43, 25세~46세)	아버지 평균연령 (SD, 범위)	44.43세 (6.02, 36세~52세)	45.0세 (5.00 40세~54세)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초졸(n, %)	0	0	초졸(n, %)	2(28.6)	0
중졸(n, %)	0	0	중졸(n, %)	2(28.6)	2(28.6)
고졸(n, %)	0	1(14.3)	고졸(n, %)	3(42.7)	3(42.7)
전문대 졸업 및 대학중퇴 (n, %)	2(28.6)	1(14.3)	전문대 졸업 및 대학중퇴(n, %)	0	1(14.3)
대졸(n, %)	5(71.4)	5(71.4)	대졸(n, %)	0	1(14.3)
대학원졸(n, %)	0	0	대학원졸(n, %)	0	0
무응답(n)	0	0	무응답(n)	0	0
부모교육 참여 경험			수입		
유(n, %)	0	0	100만원이하(n, %)	1(14.3)	2(50.0)
무(n, %)	7(100)	7(100)	101-150만원(n, %)	4(57.1)	0
무응답(n)	0	0	151-200만원(n, %)	1(14.3)	1(25.0)
자녀 평균수	1.71명 (.49, 1명~2명)	2.42명 (.79, 2명~4명)	201-250만원(n, %)	0	0
아동 평균연령 (SD, 범위)	4.85세 (2.73, 2세~8세)	8.14세 (1.86, 5세~10세)	251-300만원(n, %)	1(14.3)	1(25.0)
아동의 성별			301-350만원(n, %)	0	0
남아(n, %)	2(28.6)	3(42.9)	351-400만원(n, %)	0	0
여아(n, %)	5(71.4)	4(57.1)	401만원이상(n, %)	0	0
무응답(n)	0	0	무응답(n)	0	3

주. 배경변인별 무응답 제외 후 빈도수(백분율) 산출

해야 하는 한국적 상황에 대해 힘들어 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가사 일에 대한 부담 특히 한국 음식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일에 대한 부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시댁 시구들과의 마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더구나 이들은 필리핀에서도 한국에서도 아동발달이나 부모양육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언어적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 어머니와 교류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한국적 상황이나 한국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한국인이라 믿고 있으며 자녀들을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다는 열의는 매우 강하였으나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키워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이 한국적 가치관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며 어디에서 이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자녀 양육 문제로 시댁시구나 남편과의 갈등이 비교적 깊었으나, 한국적 가치관과 양육방식에 대해 접할 기회가 적었던 이들은 양육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면 필리핀의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거나 같은 출신국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기에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국적인 가치관과 양육방법 등에 관한 부모훈련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 아동을 둔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 발생을 예방하는 부모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에 위해 아동의 변화를 측정하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변화를 측정하는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국가별로 실시 가능한 부모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훈련 프로그램이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을 신장시키는가?

연구문제 2.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훈련 프로그램이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행동을 변화시키는가?

연구문제 3.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훈련 프로그램이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과 경상남도에서 살고 있으며 어린 자녀(10세 이하)를 둔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14명(실험집단 7명, 통제 집단 7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1) 두 집단 모두 남편이 한국인일 것, 2)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필리핀 여성일 것, 3) 아동의 연령이 어릴 것(10세 이하), 4) 자녀와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5명)이 비교집단(2명)에 비해 직업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학력수준은 두 집단 모두 대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녀의 수는 비교집단이 실험집단에 비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학력수준은 실험집단의 경우 초졸에서 고졸이하가 대부분이었으며, 비교 집단의 경우 중졸에서 대졸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은 동일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최형성(2009a, 2009b)에 의해 영어로 번역된 도구로 측정되었다. 최형성(2009a, 2009b)은 번역과 역 번역, 그리고 한국어 원본과 역 번역본의 대조 및 논의 과정을 통해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영어로 번역하였다. 최형성과 정옥분(2001)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총 37문항, 5개 하위 요인('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 5점 척도로 구성된 척도이다. 총 점수는 37점에서 18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양육효능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7이고 하위영역별로는 .90, .89, .92, .88,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최형성(2009a, 2009b)에 의해 영어로 번역된 도구로 측정되었다. 최형성(2009a, 2009b)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홍계옥(1995)의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를 영어로 번역하였다. 홍계옥(1995)의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는 총 26문항, 4개 차원('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 5점 척도로 구성된 척도이다. 이 척도는 각 차원별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도구이며 해당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양육행동 차원에 대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영역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1, .81, .77,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아동의 문제행동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문제행동은 최형성(2009a, 2009b)에 의해 영어로 번역된 도구로 측정되었다. 최형성(2009a, 2009b)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한미현(1996)의 아동의 문제행동 도구를 영어로 번역하였다. 한미현(1996)의 척도는 Achenbach(1991)의 Child Behavior Checklist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도구로써 5개 하위 영역(과잉행동, 불안 행동, 위축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 40문항, 3점 척도로 구성된 도구이다. 총 점수는 40점에서 12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Cronbach's  $\alpha$ ) 검증 결과 척도 전체는 .92이고 하위영역별로는 .77, .83, .82, .70,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 1)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부모교육 관련 전공자 3인에 의해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부모훈련 프로그램이 8회기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1주,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1주, 본 프로그램을 위해 8주 등 총 10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본 프로그램의 매 회기마다 사용할 비디오 일화 15개의 대본 작성, 비디오 촬영 및 편집, 영어 자막 입력 등도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소집단, 8주, 주 1회, 강의, 토론, 숙제, 프린트물 사용으로 진행하였던 드라이커스의 방식(유안진, 김연진, 2005)에 본 연구는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비디오 시청을 통한 학습과, 숙제 및 출석에 대한 보상, 역할극, 그리고 이들이 한국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육 상황에 적절한 한국어 표현 학습 등의 방식, 통역자 활용을 첨가하였다.

비디오 시청은 구체적인 사례학습을 통해 새롭게 배우게 될 양육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것이 자신이 해온 기술과의 차이점을 깨닫도록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토론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기술 적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훈련 방식이다.

숙제와 출석에 대한 보상은 매 회기마다 진행되는 것으로

참여자의 학습 의욕과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프로그램은 매 회기 도입부분에 숙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숙제를 통해 배운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숙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역할극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역할을 수행해 봄으로써 타인의 심리와 입장을 경험하고 효과적인 양육 기술 선택과 이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양육 상황에 적절한 한국어 표현 학습은 언어의 문제로 아동에게 피드백을 주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학습방법이라 하겠다.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하고 바람직한 한국어 표현은 이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훈련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통역자 참여는 언어전달의 오류는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프로그램의 목표 및 가치관

본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바람직한 양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적인 양육가치관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父子十二之德目(정옥분 외, 1995)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양육기술 훈련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는 자신도 자신의 아동도 한국인이며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을 위해 한국적인 양육에 대해 알고자 하는 바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예비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8주라는 시간과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현대적인 양육기술 습득으로 그 가치관 획득이 비교적 용이한 덕목 7개(관심, 모범, 인내, 가르침, 절제, 엄친, 수신)를 선별하였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양육기술 7개(관심주기, 경청하기, 칭찬하기, 설명하기, 스티커차트, 명령하기, 긍정적인 생각하기)를 선별하였다.

3) 비디오 제작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프로그램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자료인 비디오 제작에는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 3인에 의해 논의와 토론을 통해 작성된 대본, 연기자(배우 연습생인 아동과 그 어머니), 비디오 촬영(촬영 기사 및 녹음 보조원), 비디오 편집(영어 자막 포함)이 활용되었다. 영어 자막 번역은 캐나다 교수 1인과 영어권 유학생 1인,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 학자 1인에 의한 번역 및 역번역 대조, 토의, 수정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4) 참가 대상 및 집단 규모와 강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2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어린아동을 둔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 이민자들로서 7명과 7명으로 구성된 소규모집단이다. 소집단 구성은 한국적 양육 방식과 가치관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양육 행동 기술을 습득 및 적용케 하고 문화적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점에 근거하였다. 실험집단 7명과 비교집단의 3명은 부산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민간단체들의 협조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비교집단의 4명은 울산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민간단체의 협조를 통해 구성되었다.

실험집단 참여자는 가) 주 1회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나) 결석 시 결석한 주의 프로그램 녹화 테이프를 학습하고 차시 프로그램에 참석할 것, 다) 매주 숙제를 제출할 것, 라) 프로그램 효과를 위해 측정하는 검사에 참여할 것 등을 프로그램 전에 약속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강사는 아동과 부모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양육의 경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경험,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의 심층면접과 집단 면접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하였다.

〈표 2〉 프로그램 진행 내용

단계	내용	비고
도입	1. 인사 :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	다과
	2. 숙제 검사 : 숙제 확인 및 피드백 제공 등	
본론	3. 주제 강의 : 전통적 양육 가치관 설명 이를 실행하기에 적절한 양육기술 설명	요약 제공 (프린트물)
	4. 비디오 시청 : 주인공의 행동과 아동의 반응에 대한 논의	비디오
	5. 토론 : 경험담, 대안행동 교육 및 훈련	
	6. 한국어 표현 : 양육기술 사용에 적절한 한국어 표현 학습	
맺음	7. 역할극 : 학습한 한국어 사용 결합	
	8. 숙제 제시(프린트물 사용) : 숙제 설명	숙제 (프린트물)
	9. 부모 평가 : 프로그램 평가	평가지
	10. 마무리	

5) 회기의 진행순서 및 내용

본 프로그램은 매주 1회씩 총 8주로 하였으며, 매 회기마다 90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진행방식은 인사, 숙제 검사, 강의(요약본 프린트 제공), 비디오 시청, 토론, 한국어 표현 학습, 역할극, 차기에 해올 숙제 설명, 주평가, 마무리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표 2, 표3), 참석자 확인은 교육시간 이전에 실시하였고 보상수여는 교육시간 이후에 실시하였다.

〈표 3〉 프로그램 구성 내용

차시	전통적인 양육 덕목	양육기술	양육기술 실천 방법
1차시	관심(1)	관심주기	· 아동의 요구 및 생각에 관심 갖기 · 개방형 질문하기 등
2차시	관심(2)	경청하기	· 아동의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하기 · 아동의 감정까지 듣기 등
3차시	모범	칭찬하기(1)	· 상호존중의 칭찬하기 · 구체적인 표현으로 칭찬하기
4차시	인내	칭찬하기(2)	·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도록 격려하기 · 타인을 칭찬하도록 격려하기 등
5차시	가르침(생활지도)	설명하기/가르치기	· 성취할 수 있는 양으로 지도하기 · 작업가능한 공간 등 제공하기 등
6차시	가르침(절제)	스티커 차트	· 성공경험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기 · 보상과 훈육을 섞지 않기 등
7차시	엄친	명령하기/칭찬하기	· 아동의 연령에 맞는 과제 명령하기 · 긍정적인 말로 명령하기 등
8차시	수신	긍정적인 생각하기	· 부적절한 행동 하나로 내 아이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지 않기 · 상대의 동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등

6) 연구일정

프로그램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3월 30일 실시되었으며, 본 프로그램은 4월 6일에서 6월 1일까지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1회기씩 8주 동안 진행되었다. 단, 5월 4일은 일요일과 어린이날 사이에 있는 날로써 각종 행사가 많은 관계로 그 주의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으며 프로그램 주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검사는 2009년 3월 30일에 실시되었으며, 사후 검사는 6월 8일에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참여자 모두에게서 회수되었다. 추후검사는 프로그램 종료 6개월 후인 12월 6일에서 9일 사이에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 모두 소정의 선물(목욕수건과 우산)이 제공되었고 추후검사에는 선물이 제공되지 않았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비교하기 위하여 백분율과 빈도를 산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과 2, 3을 위하여 사전검사, 사후 검사, 추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산출되었다. 프로그램의 단기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가 사용되었으며, independent t-test를 통한 집단 간 비교, paired t-test를 통한 집단 내 비교, 실험집단 대상의 프로그램 효과 크기 검증(ES, effect size)을 실시하였다. ES는 표본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처치효과를 측정하는 지수 중 하나로써(Becker, 2000) 대개의 경우 적은 표본수에 의한

프로그램의 유의성 확인, 통제집단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ES는 Cohen's  $d = (M1-M2)/SD_{pooled}$ 의 공식에 의해 산출되었다(Cohen, 1988). 프로그램의 장기 효과를 위해서는 실험집단의 사전 검사와 추후검사 결과를 토대로 paired t-test와 프로그램 효과 크기 검증(ES)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 크기 검증(ES)은 Cohen(1988)이 제시한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다. Cohen(1988)은 Effect size가 .8이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매우 큰 것이고 .5이면 보통 정도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주연, 성영혜, 2008; Kim, Cain, & Webster-Stratton, 2008).

Ⅲ. 연구결과 및 해석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의 변화를 비교하기에 앞서 두 집단이 프로그램 실시 전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에서 동질적인 집단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점수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고 〈표 4〉, 〈표 6〉, 〈표 8〉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양육효능감 전체와 각 하위영역, 양육행동 각 차원, 아동의 문제행동과 각 하위영역 모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두 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전 각 변인 및 변인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동질한 집단임을 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변화

(1) 프로그램의 단기 효과 검증(8주 프로그램 종료시점)

먼저 양육효능감 척도 전체의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 $t = 2.78, p < .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각 하위영역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학습지도 능력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한 수준( $t = 2.94, p < .05, t = 3.28, p < .01, t = 2.83, p < .05$ )임이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과 훈육 능력의 경우 실험집단의 사후점수 평균은 비교집단의 사후점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의 차이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내의 비교를 위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보다 사후검사 평균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 $t = 3.32, p < .05$ )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교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보다 사후검사 평균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내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집단 내 차이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경우 전반적인 양육효능

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에서 사전검사 평균보다 사후점수 평균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 $t = 3.73, p < .01, t = 2.54, p < .05, t = 3.75, p < .01, t = 3.23, p < .05$ )으로 나타났다. 훈육 능력은 사후 검사 점수가 사전 검사점수보다 높았지만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다. 비교집단의 경우 양육효능감의 각 영역에서 사전 검사의 평균이 사후검사의 평균보다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육효능감 전체와 양육효능감의 각 하위영역 중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은 1.26을 모두 넘음으로써 매우 높은 효과가 있었음이 나타났으며, 훈육능력은 .71로써 중등도의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프로그램의 장기효과(프로그램 종료 후 6개월 시점)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살펴 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6개월 후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추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추후검사와 사전검사 점수를 토대로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사전검사점수에 비해 추후 검사점수가 유의한 차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2.45, p < .05$ ).

<표 4>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양육효능감 비교(단기효과 검증)

변인	집단	n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t	ES
양육효능감 전체	실험집단	7	3.852(.765)	4.635(.287)	3.32*	1.49
	비교집단	7	4.066(.552)	3.834(.705)	-1.53	
	t		-.60	2.78*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실험집단	7	3.779(.797)	4.662(.291)	3.73**	1.62
	비교집단	7	4.013(.552)	3.987(.534)	-.16	
	t		-.64	2.94*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실험집단	7	3.878(.988)	4.755(.294)	2.54*	1.37
	비교집단	7	4.007(.669)	3.701(.798)	-1.72	
	t		-.29	3.28*		
의사소통 능력	실험집단	7	3.591(.797)	4.460(.360)	3.75**	1.50
	비교집단	7	4.095(.519)	3.853(.736)	-1.44	
	t		-1.40	1.96		
학습지도 능력	실험집단	7	4.214(.567)	4.762(.302)	3.23*	1.26
	비교집단	7	4.048(.762)	3.619(1.026)	-2.32	
	t		.46	2.83*		
훈육능력	실험집단	7	4.036(1.015)	4.536(.393)	1.57	.71
	비교집단	7	4.286(0.713)	3.964(.835)	-1.26	
	t		-.53	1.64		

주. ES 정도 -d = .5: 중등도, d = .8: 고등도

\* $p < .05$  \*\* $p < .01$



〈표 5〉 실험집단의 양육효능감 사전-추후 검사 비교(장기 효과 검증)

변인	n	사전검사 M(SD)	추후검사 M(SD)	t	ES
양육효능감 전체	7	3.852(.765)	4.516(.372)	1.91	1.17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7	3.779(.797)	4.468(.354)	1.79	1.20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7	3.878(.988)	4.612(.450)	1.63	1.02
의사소통 능력	7	3.591(.797)	4.444(.395)	2.46*	1.43
학습지도 능력	7	4.214(.567)	4.548(.405)	1.40	.69
훈육능력	7	4.036(1.015)	4.607(.430)	1.47	.79

주. ES 정도 -d = .5: 중등도, d = .8: 고등도

\*p < .05

〈표 6〉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양육행동 비교(단기 효과 검증)

변인	집단	n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t	ES
양육행동 : 합리적 지도	실험집단	7	4.446(.345)	4.839(.267)	2.49*	1.28
	비교집단	7	4.196(.345)	4.199(.543)	.02	
	t		1.36	2.80*		
양육행동 : 한계설정	실험집단	7	4.221(.705)	4.829(.180)	2.07	1.37
	비교집단	7	4.171(.582)	4.171(.496)	.00	
	t		.14	3.30*		
양육행동 : 애정성	실험집단	7	4.286(.455)	4.908(.140)	3.85**	2.09
	비교집단	7	4.232(.492)	4.000(.669)	-1.63	
	t		.21	3.51*		
양육행동 : 반응성	실험집단	7	4.314(.840)	4.943(.098)	1.87	1.34
	비교집단	7	4.343(.608)	4.029(.770)	-1.47	
	t		-.07	3.12*		

주. ES 정도 - d = .8: 고등도

\*p < .05 \*\*p < .01

## 2.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행동 변화

### (1) 프로그램의 단기 효과(8주 프로그램 종료시점)

프로그램을 통한 양육행동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 영역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 = 2.80, p < .05, t = 3.30, p < .05, t = 3.51, p < .05, t = 3.12, p < .05$ ),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검사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경우 양육행동 차원의 차원 중 합리적 지도와 애정성 영역에서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 점수 평균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2.49, p < .05, t = 3.85, p < .01$ ). 한계설정과 애정성 영역은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은 아니었다. 비교집단의 경우 각 양육행동 영역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에 큰 차이가 없거나 사후검사 평균이 사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내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단기적 효과 크기는 양육행동의 각 영역 모두 1.28을 넘음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프로그램의 장기 효과(프로그램 종료 후 6개월 시점)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 검증을 위해 살펴 본 실험집단의 집단 내 비교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양육행동 차원 모두 사전검사 평균보다 추후검사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내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 크기는 합리적 지도와 한계설정의 경우 .36을 넘지 못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애정성과 반응성의 경우 .52를 넘음으로써 중등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문제행동 변화

### (1) 프로그램의 단기 효과(8주 프로그램 종료시점)

〈표 7〉 실험집단의 양육행동 사전-추후 검사 비교(장기 효과 검증)

변인	n	사전검사 M(SD)	추후검사 M(SD)	t	ES
양육행동 : 합리적 지도	7	4.446(.345)	4.554(.456)	.42	.27
양육행동 : 한계설정	7	4.221(.705)	4.429(.355)	.64	.39
양육행동 : 애정성	7	4.286(.455)	4.536(.437)	.90	.56
양육행동 : 반응성	7	4.314(.840)	4.657(.458)	.79	.53

주. ES 정도 -d = .2: 저등도, d = .5: 중등도

〈표 8〉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아동의 문제행동 비교(단기 효과 검증)

변인	집단	n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t	ES
아동의 문제행동 전체	실험집단	7	1,925(.302)	1,592(.304)	-1.99	1.10
	비교집단	7	1,733(.245)	1,615(.153)	-1.33	
	t		1.30	-.18		
아동의 과잉행동	실험집단	7	2,143(.233)	1,750(.445)	-1.97	1.16
	비교집단	7	1,901(.225)	1,709(.267)	-1.18	
	t		1.98	.21		
아동의 불안행동	실험집단	7	2,071(.438)	1,778(.458)	-1.49	.65
	비교집단	7	1,661(.519)	1,651(.199)	-.06	
	t		1.60	.68		
아동의 위축행동	실험집단	7	1,786(.499)	1,393(.447)	-1.74	.83
	비교집단	7	1,750(.280)	1,446(.122)	-3.23*	
	t		.17	-.31		
아동의 공격행동	실험집단	7	1,571(.272)	1,357(.326)	-1.27	.72
	비교집단	7	1,571(.322)	1,448(.322)	-1.11	
	t		.00	-.52		
아동의 미성숙행동	실험집단	7	2,036(.351)	1,661(.328)	-1.89	1.10
	비교집단	7	1,786(.173)	1,804(.313)	.16	
	t		1.69	-0.83		

주. ES 정도 -d = .5: 중등도, d = .8: 고등도

\*p < .05

〈표 9〉 실험집단의 아동의 문제행동 사전-추후 검사 비교(장기 효과 검증)

변인	n	사전검사 M(SD)	추후검사 M(SD)	t	ES
아동의 문제행동 전체	7	1,925(.302)	1,444(.318)	-3.80**	1.55
아동의 과잉행동	7	2,143(.233)	1,571(.278)	-8.00***	2.23
아동의 불안행동	7	2,071(.438)	1,375(.209)	-4.83**	2.15
아동의 위축행동	7	1,786(.499)	1,188(.293)	-3.71*	1.50
아동의 공격행동	7	1,571(.272)	1,339(.380)	-1.67	.71
아동의 미성숙행동	7	2,036(.351)	1,506(.304)	-3.84**	1.62

주. ES 정도 -d = .5: 중등도, d = .8: 고등도

\*p < .05 \*\*p < .01 \*\*\*p < .001

먼저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아동의 문제행동 전체와 문제행동 각 하위영역 모두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집단 내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에서는 집단 내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비교집단에서 아동의 위축행동이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되었음이 나타났다( $t = -3.23, p < .05$ ).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효과 크기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문제행동 전체, 아동의 과잉행동, 아동의 미성숙 행동에서 1.1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었고, 아동의 불안행동, 아동의 위축행동, 아동의 공격행동은 .6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중등도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프로그램의 장기 효과(프로그램 종료 후 6개월 시점)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 검증을 위해 6개월 후 추후 검사한 결과,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문제행동 전체와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미성숙 행동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 = -3.80, p < .01, t = -8.00, p < .001, t = -4.83, p < .01, t = -3.71, p < .05, t = -3.84, p < .01$ ). 그러나 아동의 공격행동은 사전검사와 추후 검사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 크기 검증 결과 아동의 공격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하위영역과 문제행동 전체에서 1.51을 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과잉행동과 불안 행동의 경우 효과크기가 2.1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매우 컸음이 나타났다. 아동의 공격행동은 .7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중등도의 효과가 있었음이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 아동을 둔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효과 검증을 위하여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이 측정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들을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의 경우 양육효능감 전체, 양육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학습지도 능력 영역에서 프로그램 직후 실험집단의 양육효능감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경우 양육효능감 전체,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에서 프로그램 전 보다 후에 유의한 수준에서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후 임상적으로 변화하였는지 살펴 본 프로그램 효과 크기 검증을 통해 프로그램 직후 양육효능감 전체와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영역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매우 컸으며 훈육능력의 경우 중등도 정도의 효과가 있었음도 나타났다.

추후검사 결과 실험집단의 양육효능감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 능력만이 사전 검사보다 추후검사 시에 유의하게 높

아진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신장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을 신장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더구나 6개월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후 이루어진 추후 검사 결과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에서 집단 내의 차이가 있음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양육의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한국어 표현 학습을 훈련시킨 결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사료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을 유발하는 의미있는 변인이라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Gondoli & Silverberg, 1997; Leerkes & Crokenberg, 2002; Teti & Gelfand, 1991; Wells-Parker, Miller, & Topping, 1990). 높은 양육효능감은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유도하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은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 및 문제행동 감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양육효능감 신장 효과는 긍정적인 양육행동 증가와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의 가능성을 예견케 하는 결과라 하겠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행동의 경우, 양육행동의 각 차원 즉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 영역에서 프로그램 직후 실험집단의 양육행동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집단의 합리적 지도와 애정성이 사전검사에 비해 프로그램 직후 유의한 수준에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후 임상적으로 변화하였는지 살펴 본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통해 프로그램 직후 양육행동 각 영역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매우 컸음도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그램 6개월 후 실시한 추후검사 결과 집단 내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애정성과 반응성 영역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중등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합리적 지도와 한계설정은 그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직후 나타난 집단 간 및 집단 내의 단기적 변화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행동 변화에 비교적 효과적임을 입증한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여성결혼이민자의 바람직한 양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를 단기적 목표로 설정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목표하는 바를 충족시킨 결과라 하겠다.

추후검사결과 사전검사에 비해 양육행동 각 영역의 점수들이 상승되었지만 두 검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6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에 기인한 것으로 프로그램 종료 6개월 이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재혼련의 필요성을 고려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아직까지 여성결혼이민자 특히 특정 국가와 문화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없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쉽지 않으나, 6개월 후 나타난 결과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의 바람직한 양육행동 발달이 1회 프로그램 참여만으로 다 이루어 질 수 없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라 하겠다.

재교육의 시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직후부터 단기간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효과 검사를 장기적으로 지속하여 진행함으로써(예를 들면 6개월 동안 매 1개월마다 프로그램 효과 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느 시점이 재교육에 가장 적절한 시점인지를 찾아보는 등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추후검사는 재교육의 시점뿐 아니라 각 변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비교자료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미있는 후속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우, 프로그램 직후에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가 없으며 비교집단의 위축행동을 제외한 모든 문제행동 영역에서 집단 내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후 임상적으로 변화하였는지 살펴 본 프로그램 효과 크기 검증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 전체와 과잉행동, 미성숙 행동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매우 컸으며,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중등도 정도의 효과가 있었음이 나타났다. 추후검사 결과 실험집단의 아동의 문제행동 전체와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미성숙 행동 영역에서 프로그램 전 보다 종료 6개월 후에 매우 유의한 차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에서도 나타나 이 영역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매우 컸음이 나타났고, 아동의 공격 행동의 경우 그 효과가 중등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과 관련된 연구들(구수연, 2007; 전홍주 외, 2009; 최형성, 2009a, 2009b)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존감이나 문제행동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처럼 프로그램 종료 직후 아동의 문제행동이 변화하지 않았음은 이제까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이러한 양육 특성들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먼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양육효능감 전체와 두 차원의 양육행동이 변화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영향력이 프로그램 종료 6개월 후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에 관한 부모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며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의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그 아동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까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의 경향성 및 주 양육자 역할 수행 미비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매우 활용도가 높은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도 어머니 자신에 대한 변화를 보고하는 연구들은 많으나(박정자, 1998; 오세덕, 1995; 이혜란, 1997) 아동의 변화에 대해 보고하는 연구는 드문 현실에서 본 프로그램이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임을 입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양육효능감 전반을 신장시키고 두 차원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증가시켰으며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목표를 충족시키는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임을 입증한 결과라 하겠다.

한편 비교집단 아동의 위축행동이 프로그램 직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낮은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인지한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의 위축행동과 이로 인해 아동의 위축행동에 대한 증가된 관심,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부터 받는 관심이 비교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Hawthorn effect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나, 좀 더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양적 및 질적 후속 연구가 진행된 후에야야 정확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수가 적음으로 인하여 그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제한점을 안고 있으나 여성결혼이민자 특히 특정 연령대의 자녀를 둔 특정 국가 출신들을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모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이들을 대상으로 총 회기 10주(프로그램 8주, 오리엔테이션 1주, 평가 1주)를 진행한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고, 이들을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프로그램 참여자가 열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점과 한 집단의 수를 본 연구처럼 특정국가 대상의 소집단으로 한정지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 매우 유효한 선택이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만남이 어려운 이들 집단의 특성상 추후검사에 비교집단을 포함하지 못함으로써 장기효과를 살펴볼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 중 미성숙 행동 영역의 경우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경향성을 보임으로써 미성숙 행동에 대한 해석 및 논의에 다소 한계가 있음도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져야할 문제에 대해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한 번에 많은 수를 모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양적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소집단 규모의 프로그램의 빈도수를 높임으로써 양적 분석에 충분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일회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지속적인 수행 및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를 기반으로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특정 문화와 국가에 적절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추후 검사에 비교집단을 포함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비교 등을 통한 재교육 시점 실시 여부 및 시점 파악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http://www.mest.go.kr>에서 2009년 11월 4일 인출.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 <http://www.mest.go.kr>에서 2007년 4월 13일 인출.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외(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http://www.mest.go.kr>에서 2007년 4월 13일 인출.

구수연(2007).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본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와 가정에 대한 이해. **열린유아교육연구**, 10(12), 95-124.

김민정, 유명기, 이혜경, 정기선(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남영옥(2001).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경계선 성격 특성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 59-88.

마산교육청(2006). 마산교육청 다문화혁신과제(1). <http://www.mse.go.kr>에서 2008년 6월 15일 인출.

박정자(1998). APT훈련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10대 자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http://www.mw.go.kr>에서 2007년 4월 14일 인출.

승혜경(2008). 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및 방과 후 생활 분석.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엄명용(2000). 비행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청소년비행 예측 요인의 발굴. **한국사회복지학**, 42(8), 254-289.

여성가족부(2007). 말 안 통해 자녀양육이 가장 어려워요. 보도자료. <http://moge.korea.kr>에서 2007년 4월 13일 인출.

오세덕(1995).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과 부모의 자기이해 프로그램 효과 비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유안진, 김연진(2005).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이주연, 성영혜(2008). 그룹홈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증진을 위한 집단 치료놀이 프로그램 효과. **아동학회지**, 29(1), 189-205.

이혜란(1997). PET가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전홍주, 배소영, 광금주(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 필리핀과 일본 어머니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3), 161-186.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외(1995). 세계화를 위한 '효'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 모색. 학진 연구과제 보고서.

창원여성의 전화(2007). **멘토링 프로그램 자료집**. 창원: 사단법인 창원여성의전화.

최형성(2005). 남녀아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양육행동의 인과관계 모형. **인간발달연구**, 12(4), 121-137.

최형성(2007).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아동의 자존감 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28(3), 77-100.

최형성(2009a). 여성결혼이민자의 어린 아동의 문제행동 모형 탐색: 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0(3), 197-211.

최형성(2009b).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 아동의 자존감 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30(5), 245-262.

최형성,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코시안의 집(2006a). 이주여성과 코시안 자녀. 자료실. <http://www.kosian.urm.or.kr>에서 2007년 4월 14일 인출.

코시안의 집(2006b). 농촌의 코시안, 한글교육·자녀상담 상설기관 절실. 자료실. <http://www.kosian.urm.or.kr>에서 2007년 4월 14일 인출.

통계청(2006). 인구동태. <http://www.kostat.go.kr>에서 2007년 4월 13일 인출.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 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계옥(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애착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달아기, 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 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Bandura, A.(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ecker, L. A.(2000). Effect size(ES). <http://web.uccs.edu/lbecker/Psy590/es.htm>
- Bullis, M., & Walker, H. M.(1994). *Comprehensive school based systems for troubled youth*. Eugene, OR: University of Oregon, Center on Human Development.
- Cohen, J.(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2nd ed.). Lawrence Erlbaum, NJ: Hillsdale.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Eccles, J., & Harold, R.(1996). Parent-school involve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 *Teachers College Record*, 94, 568-587.
- Francis, D. J., Shaywitz, S. E., Stuebing, K. K., Shaywitz, B. A., & Fletcher, J. M. (1991). Analysis of change: modeling individual grow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27-37.
- Glueck, S., & Glueck, E.(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ndoli, D. M., & Silverberg, S. B.(197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61-868.
- Kazdin, A. E.(1985). *Treat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Homewood, IL: Dorsey.
- Kim, E., Cain, K. C., & Webster-Stratton, C.(2008). The preliminary effect of a parenting program for Korean American mothers: a randomized controlled experimental study. *International Nursing Studies*, 45, 1261-1273.
- Leerkes, E. M., & Crokenberg, S. C.(2002). The development of maternal self-efficacy and its impact on maternal behavior. *Infancy*, 3(2), 227-247.
- Mondell, S., & Tyler, F. B.(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1992). *A social approach: antisocial boys*. Eugene, Oregon: Oregon Social Learning Center.
- Rog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Teti, O.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Wells, L., & Rankin, J.(1988). Direct parental control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6(2), 263-285.
- Wells-Parker, E., Miller, D. I., & Topping J. S.(1990). Development of control-of-outcome scales and self-efficacy scales for woman in four life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3&4), 564-575.

접 수 일 : 2010년 1월 4일  
 심사시작일 : 2010년 1월 6일  
 게재확정일 : 2010년 3월 4일